

제 93 호

연중 제 23 주일

(강림 후 14)

1974. 9. 8.

숲 정 이

발행인	김 영 일
인쇄인	합 승 천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601번지
가톨릭센터 내 (전화 ②3498)

【강 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

이상호 신부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먼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버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잡고 나를 따르시오”(루가 14 : 33)

최근에 와서 사람들의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의 가치는 자기완성에 있다. 즉 지적수준을 높이고 예의범절을 존중하고 도덕을 탐구 인간 양심을 잘 보존하여 영생을 얻으려는데 그 목적을 두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물질을 경히보고, 쾌락을 멀리하며, 현실을 천하 보며, 자아를 극복하고, 가난에 만족하며, 온갖 욕망을 억제하는데 더욱 힘을 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에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가치와 목적을 현세에 두고 물질과 황금만을 바라보며 안일과 편익과 쾌락과 자기중심에로만 치달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도로 발달된 과학과 기술의 덕택이라 하여 과학만능을 구가하여 과학외의 힘 즉 조물주의 전지 전능을 배제하려 들고 있습니다. “교회 현대화”라 하여 교회내에도 많은 것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즉 기도의 단축, 고신극기의 대폭축소, 공식제 시간의 단축, 엄격한 계규율의 완화, 성당내의 안락한 의자시설 등등. 그러면 이 모든 현상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에 어떤 변화가 있단 말인가? 2천년 전의 예수님의 말씀의 가치가 떨어졌단 말인가? 진리도 변하고 천당가기도 쉬워지고 현실해졌다는 말인가?

이러한 외적 내적 변화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 어찌로 치달고 있으며 어느 시점까지 와 있는가? 현대사회의 너무나 큰 거센 물결과 조류에 휩쓸려 현세적이요 물질적인 것에 휘말려 물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무용론, 극기 회생의 회피, 교회의 세속화, 물질만능의 사고방식, 구질서와 전통의 파괴등에 두의식중에 기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모든 상황이 “신앙의 저하”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이전 결과의 원인은 교회 현대화의 잘못된 인식과 해석, 가치관의 전도, 전통의 파괴등에서 왔다고 봅니다.

우리의 구원은 “자아탈피” 즉 자아 초월에 있습니다. 외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완화되고 변했다해서 내적인 가치와 의미가 달라졌다고 생각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진리와 원리는 조금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 실천방식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즉 율법적이고 형식적이던 것이 그 진수인 사랑과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 내적인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지지 못할때 우리의 신앙은 저하되고 냉해지며 교회는 무기력해져서 엉뚱한 방향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석도 신식도 아닌 알맹이 없는 허수아비신자 되고 마는 것입니다.

복자성월을 맞이하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이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반성해 봅시다. 우리 선조 순교자들과 그 시대 신자들의 신앙과 생활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들의 정열과 사랑의 실천, 그들의 기도생활과 자아극복등, 다시 한번 회고해 봅시다. 해배 묵은 소리 같고 고리타분한 말같지만 순교자들의 시대와 생활속에 담긴 신앙의 의의와 신앙생활의 참맛과 멋이 깃들여 있지 않았을런지요? <신태인 주임신부>

* 이 주일의 미사 *

(1) 개회식

□**입당송** 주여, 당신은 의로우시고, 그 판단하심도 빠르시나이다. 어지신 그대로 당신 종을 다루소서.

(2) 말씀의 전례

□**제1독서** (지서 9 : 13-19)

하느님의 뜻을 누가 감히 생각할 수 있으랴.

□**증계송** ◎주여 당신은 대대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셨나이다.

당신이 앓아가면, 그들은 한바탕 꿈, 아침에 일어나는 풀과 같이, 아침에 피었다가 푸르렀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 버리나이다. ◎

□**제2독서** (필레몬 1 ; 9-10, 12-17, 성서 P. 494)

이제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교우로서 그를 대하라.

□**알렐루야** 알렐루야. 활짝 개인 얼굴 빛을 종에게 보이시고 당신의 규정을 내게 가르치소서. 알렐루야.

□**복음** (루가 14 : 25-33, 성서 P. 171)

가진 것 전부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신자들의 기도

1. 가진 것을 전부 버려야 당신의 제자가 된다고 가르치시는 주여, 우리로 하여금 현세의 것을 당신의 것으로 승화시킬 줄 아는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주여.....

2. 당신이 주신 인간의 존엄성과 민권을 위해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도 순교자의 정신을 심어 주소서. ◎

3. 재정적인 난관에 봉착한 본당 운영을 위해서도 구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올라가는 물가에 시달리면서도 본당 살림을 걱정하게 하소서. ◎

주여 비오니, 우리로 하여금 한국 순교 복자의 정신을 본받아, 한국 천주교회가 당면한 모든 어려움을 주교 사제, 수도자, 평신도가 하나로 뭉쳐 헤쳐나갈 줄 아는 일치와 용기를 주소서. 우리 주.....◎아멘

(3) 봉헌

□봉헌 □영성체

□**영성체송**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 하듯, 내 영혼, 하느님을 그리나이다. 내 영혼 하느님을, 생명의 하느님을 애타게 그리나이다.

(4) 폐회식

* 숲 정 이 산책 *



순교 정신인 하늘보다 높다
— 복자 성월 —

□목자의 소리□



나의 플랜 『3진 의 삶』

김 봉 희 신부

어느 특배기의 번이라 해도 좋다. 잠꼬대라 해도 무방하다. 아무튼 어지간히 뻗혔기에 중얼거림일제라고만 해두자. 하늘 아래 뭐 새로운게 없다는데, 어제가 그랬고 오늘이 또 그러한 이 줄생(拙生)에 내일인들 무슨 보족한 수가 있을까만 그래도 한가닥 잘 살아보겠다는 작은 염원만은 한구석에 있어 이리라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 스스로 신통할 뿐이다.

내사 어렵으로 잡은 말이지만, 생의 존재 이유와 가치라는 것이 판엔 "어떤 공헌(功獻)을 하고, 이루는데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든다. 자신을 위하고 가정과 사회, 이 세상을 위해 나름대로 이바지하고 거기에 작은 보람을 얻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생의 의미요 창조주 하느님의 뜻이 아닐까? 어찌거나 기왕지사 붙여진 한목숨 다치는(死) 날까지 한껏, 힘껏 주어진 특혜를 누리며 조리하며 영광되게 살고프다. 되도록 보다 멋지고 맛지게, 그리고 잡지게 인생「드라마」의 한「씬-」을 엮고 싶다. 각본 제작을 한 분이나 치켜다보는 관중이나 모두가 다 기뻐할 수 있게시리.

하여, 뜻대로 아니되는 삶이지만 짚잡히 짜고 엮어 소신껏 보람과 공헌 이루며 누리에 기쁨 줄 수 있는 길 하나를 궁리해 본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흐트러지지 않게 작은 자신부터 차분히 잘고 정리할 밖에. 부족한 자신의 수련과 공부를 위한 사사로운 나의 규칙적 시간을 먼저 할애 받고 싶다 할까? 어렵고 벅찬 성직, 사목자치고 어느 누구인들 신심깊은 사제, 성인다운 신부, 열성 있는 사도의 길 아니 엮어가려는 자 없겠기, 이 몸에도 그 대망의 과제만은 항상 버려말에 놓고 달아가야 할 목표라고 지레 말해주고 싶다. 주님의 보다 큰 영광 그리고 만인의 구원에 미력이나마 더 잘 이바지 하고자.

언젠가 어느 선배 신부님을 찾아뵈었을 제 "면회(面會)가 바로 내 일이다"하고 기쁘게 맞아 주시던 생각이 난다. 그뻘 무심히 내친 말씀이었지만 소위 성무를 보다보니 이젠 그냥 흘러넘길 뎁담이 아니었구나 하고 깊은 공감에 젖어든다. 그래 요즘엔 이 「면접」(상담)과 「방문」을 필연적인 그리고 제1차적인 나의 사목임무로 꼭 염두에 두고 산다. 그리고 어디서나 느끼는 터이지만 미흡한 신자 재교육과 신심 부흥을 위해 「연수회」나 「목사회」를 통한 질적 향상 운동, 또 아동과 청소년 교리교육, 그리고 예비자 교리 및 청장년의 바른 인생과 교양을 위한 「구름지도」등은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급선무,

정작 꼬꾸라지면서도 힘 기울여야 할 주업무라 다짐해 마지 않는다.

그래 감히 이 고을 새 머슴이 된 본 신부의 「사목방침」 이랍시고 구태여 여기 한번 다시 뭉뚱그려 본다.

1. 신양부활을 위한 특별교리 및 연수회, 목사회를 통한 신자 재교육 도모
2. 전교 및 교회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 사도회를 비롯 각 조직체제 활동 강화
3. 본당을 비롯 각 공소의 자립화로 대 공소의 본당승격과 1년 1공소 설립 추진
4. 교회의 평화스런 대화 분위기 조성과 자연 선교를 위한 성당의 미화 및 공원과 추진
5. 능률적인 사목활동을 위한 오전 사무(연구, 준비) 오후 방문, 저녁 단회 및 개인 영성지도의 성무일과 준수

이상의 목표를 두고 능력껏 이 고장 선교 및 사업 대계를 교형과 함께 꾸려 확실히 밀고 나아가고프다. 배전의 협력과 이해 그리고 값진 봉사로 일심 매진해 주시길 두루 빌어마지 않는다. 너와 나의 구원 그리고 우리의 참다운 행복과 평화를 위하여-

하여간 조코망고 어린 생 하나에 할 일은 너무 많다. 생각하면 이려 저려 절첩히 쌓인 과제 뎁에 한시도 맘놓고 다리조차 뻗을 수 없는 생이 바로 세상에 고독한(?) 이 사제의 하루가 아닐런지.....우리 님(主) 함께 하시고 또 죽음끝에 부활받은 님의 재림과 그 나라의 희망이 없었던들, 그러기 친족에 뿌리쳤을지도 모를 교담쁜 길 아니겠느냐고 때때로 자위하며 되돌아 보기도 한다. 오로지 한가닥 남이 쉽사리 질 수없는 짐을 걸머졌기 이 회생된 삶, 속죄로(?) 바쳐지는 삶에 보람과 고고한 안위를 머금고 나아가간다고나 할까? 세파에 시달린 몸동아린 뉘일 곳이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결코 실망하지 아니한다. 과거에 후회하지 아니하고 미래에 절망도 아니한다. 주님 좇아 우리의 하는 일에 불가능은 없다고 단언 하니까. 다만 최선을 다할뿐, 그로 족할 따름이다.

가노라 장벽이 가로놓일 때에도 어디에나 고운 님 계시렀고, 또 항상 생각해주고 밀어주는 벗님들, 위해주는 아나 어린동아들은 있는 법, 나 실로 얼마나 자주 자주 게 시름 셋고 용기 돋워 오던가?! 사심(私心)없이 내어달는 가쁜 생, 아아-, 뭐라해도 나 그로 값있어여라!

죽으려 죽으려 다 하기 까지 웃고지며 놀고지는 기생(姦生), 출 주는 무회 처립 제 없이 남 위해 살고지고 살고지고.....
<김계 천주교회 주임신부>

제일 비싼 독일의 3년 연속 V.A. 번식 성적 1위인 판토호의 직자
렉스 V 래트프

仔犬분양 (임한전 애견)
문의처: 전화 07692(진북동 어은플)

고 외 과 의 원

고 재 상(나자로)

TEL. 07425

서중.교육위원회 앞(진북동)

염 소 아 과 의 원

염 의 도(시몬)

TEL. 06859

서울은행 옆 이치과 뒤

□순정이 소식□

＊ 특 보 ＊

순정이가 전주시내 합동 주보로 발간된 지 52주만에 김재, 부안, 신태인, 정읍 천주교회(1지구)가 참여하여 그 모습을 달리해왔습니다. 이제 다시 그 모습을 새롭게하여 10월부터 전주 교구 주보로 출범합니다. 명실공히 교구의 주간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교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주교님과 교구내 제위 신부님, 각 본당 사도회장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순정이 편집실 아뢰

요심이 (59) 김병오 



＊ 직원 모집 ＊

아래와 같이 유급 직원을 모집합니다

아 래

1. 모집인원 1명
2. 원서접수
 - ① 기한 9월 13일 오후 5시
 - ② 제출처 가톨릭 센터내 사목협의회 사무실
 - ③ 제출서류 가. 자필 이력서 1통
나. 본당 신부 추천서 1통
다. 명함판 사진 1매
3. 응모자격 천주교 신자
4. 할 일
 - ① 사무(문서 수발, 기안, 금전 출납 정리)
 - ② 타자
 - ③ 원고 정리 및 교정
5. 전 형
 - ① 1차 서류 전형
 - ② 2차 면접 (9월 15일 오후 4시)

※ 서류 전형 합격자는 개별 통지함
6. 기 타
 - ①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 ② 문의사항은 전화 ㉠-3998 한 상 갑 앞으로

1974. 9. 6

교구 사목 협의회
순 정 이 편집실

□양서안내□

아름다운 새벽

-마해송 지음

성 바오로 서원 (T. 2-7398)

＊이 주간의 성경＊

- | | |
|---|---|
| <p>9<월> 독서(고린토 전서 5:18- 성서 P.378)
복음(루가 6:6-11, 성서 P. 138)</p> <p>10<화> 독서(고린토전서 6:1-11 성서 P.379)
복음(루가 6:12-19, 성서 P.138)</p> <p>11<수> 독서(고린토전서 7:25-31. 성서 P.382)
복음(루가 6:20-26, 성서 P. 139)</p> | <p>12<목> 독서(고린토전서8:1-7,10-13성서 P,383)
복음(루가 6:27-38, 성서 P. 139)</p> <p>13<금>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학자기념(1월27일)
독서(에페소 4:1-7,11-13. 성서 P.441)
복음(마르코 4:1-9, 성서 P. 82)</p> <p>14<토> △ 성 십자가 선양 축일
독서(필립비 2:6-11, 성서 P 450)
복음(요한 3:13-17, 성서 P. 206)</p> |
|---|---|

문 산부인과 의원

문 지 식(레나도)

TEL. ㉠ 2918

경전라사 옆 제신청 뒤

이 신경외과 의원

이 종 두(헨리고)

TEL. ㉠ 2646

아관원 옆 구대구집

교우들의

건강 상담과 물리 치료

...고혈압. 신경통. 해소천식.
지압...소화불량. 소아마비. 기타
...병명 미상의 질환에 특효

김 용 택(모이세)

연락처: 진북 고등 공민학교 옆
(진북 2동 1157의 10)

제4지구 6개 분당 소식

1. 분당 순회 교육 (9월 6일 오후 8시-8일 오후 2시) ...교구 사목 협의회 주최

분 당	강 사	분 당	강 사
부 안	조해형, 박춘근, 한상갑 선생, 김원식 수녀	동 이 리	법석규 신부, 유기동, 이종욱 선생, 이양훈 수녀
화 산	지정환 신부, 김성원, 조상렬 선생, 신영숙 수녀	진 안	김종택 신부, 이상용, 종재진, 정주부 선생

2. 조성호씨 (교구 사목 협의회장), 한국 가톨릭 평신도 사도직 중앙 협의회 부회장에 피선

- (8월 30일-9월 1일, 왜관 베네딕도 피정의 집)
- 제 7차 정기 총회를 갖은 한국 가톨릭 평신도 사도직 중앙 협의회는 「사회 참여」에 대한 강의를 듣고 (강사: 박상래 신부, 김달호 교수) 분과 협의를 통하여 단명한 한국 사태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갖고 「주교단에 보내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 조직 재정비를 활동 목표르 결의한 동회는 회장에 김기철씨(서울), 부회장에 조성호씨(전주), 광역자씨(대전)를 선출했다.
 - 또한 동협의회는 「가톨릭 시보」에 대해 올바른 보도 자세를 촉구했다.
3. J.O.C. 수련회 및 정기 총회에서 임원 개선 (8월 31일-9월 1일, 송광 보이스카우트 캠프장)
남자 회장 김병주(안토니오), 여자 회장 오인숙(안젤라), 서기 부장 황진숙(안젤라), 회계 부장 문복주(프리스카), 교육 및 확장 임순성(가브리엘)
4. 중·고등 학생 연합회, 분당 학생회 실태조사
 ① 9월 8일 오전 11시...김계, 남원, 화산, 고산, 함열, 신태인(오후 2시)
 ② 9월 15일 오전 11시...금산, 정읍, 부안, 진안, 장계, 수류
 ③ 당일 각 분당 학생회장은 정한 시간에 학생회를 소집해 주기 바람.
5. 교구 대학생 연합회, 회보 발간을 위한 <1일 다실>에 협조 바람 (다음 주일, 임금님 찾집에서) 회보 발간을 위한 대학생들의 노력이 적극 협조 합니다.



(중앙)

전화 ②651 ②3874 주임 신부 이 대 권 보좌 신부 서 석 구 사도 회장 이 복 석

- 사도회 임원 구역장, 신심단체 대표 연석회의
오늘 공식 미사후
- 꾸리아 월례회 (오늘 오후 2시)
- 섬모회 월례회 (다음 주일 공식 미사후)
- 미사 시간 변경
 ① 평 일...오전 6시, 오후 7시 반
 ② 금요일...오전 10시 (어머니 미사), 오후 7시 반
 ③ 토요일...오전 6시 오후 6시(특전미사, 학생미사)
 ④ 주 일...오전 6시, 10시, 오후 4시(아동), 7시 반
 □ 지난 주일 봉헌금 40,420원, 더욱 분발 합니다.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오 기 순 사도 회장 조 성 호

- 교무금 완납하고 새해를 맞으시다.
10월 1일부터 75회계 연도가 시작됩니다.
- 섬우회 (오늘 공식 미사후)
- 신용 협동 조합 월례회 (다음 주일 공식 미사후)
조합원의 빠짐없는 참석 바람
- 유아 세례 (내일 오전 10시)
- 교미시물 (다음 주일 오후 1시 반, 전동)
□ 지난 주 성미 1말 3되, 누계 304말 4되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함 승 천 사도 회장 조 해 혈

- 신용조합 월례회 (오늘 10시 미사후)
- 예비 신자 교리 (오늘 10시 미사후)
- 미납된 교무금은 9월중에 완납합니다.
- 성당 신축 헌금에 감사 드립니다.
중노 2가, 문형주(2천원), 이기환(1천원)
인후, 함영철(5백원) 누계 1,520'497원
- 사도회 임원 및 구역장 반장님 임시 연석회를 갖겠
으니 빠짐없는 참석 바랍니다. (10시 미사후)
□ 지난주 신축 성미 3말 5되, 누계 210말 5되,
지난 주일 봉헌금 12,720원, 감사합니다.

(서화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김 영 일 사도 회장 이 거 영

- 각 부장님들은 예산안 제출하세요
(오늘까지, 사무장에게)
- 어제 부터 아동 교리 시작
부모님들의 개별한 유의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 예비자 교리도 지난 주일부터 (공식 미사후)
예비자들의 빠짐없는 참석 바랍니다.
- 결산 보고와 예산 편성(22일 주일에)
사도회 임원, 구역장, 반장, 공소 회장들의 참석바람
☆ 축 결 혼 ☆ (내일 오전 10시)
김 길 수(공사가)군과 소 영 숙(메레사)양
□ 지난 주일 봉헌금 12,140원, 감사합니다.

(덕진)

전화 ②8082 주임 신부 박 종 근 사도 회장 김 중 환

- 전당리 공소 미사 (오늘 오후 4시)
- 사도 회의 (오늘 공식 미사후)
- 푸른 양지회와 학생회의 노고를 치하 합니다.
본당에서 적극 활동하고 있는 그들을 격려 합니다.
-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과 고통을 나눕시다.
- 최근에 우리 분당 공동체의 일원이 된 형제 자매들
을 환영합니다.
□ 지난 주일 봉헌금 10,526원 (본당 7,926원,
공업단지 2,600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②3222 주임 신부 김 환 철 보좌 신부 정 승 현 사도 회장 송 재 진

- 미사 시간 변경 (다음 주일 부터)
① 주일...오전 6시, 9시, 10시, 오후 7시 반,
② 평일...오전 6시, 오후 7시 반
- 부부 예비자 교리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반)
- 중·고등학생 예비자 교리 (매주일 오후 2시)
- 9월은 정리 하는달, 교무금 완납을 바랍니다.
- 자모회의 발전을 축하합니다 (어제 46회 정기총회)
- 복자축일 영세 예비자교리(화요일부터 저녁미사후)
- 신용조합 월례회 (14일<토>, 오후 8시)
임원회 (내일 오후 8시)
- 중·고등학생 임시 총회 (오늘 공식 미사후)

금주의 성정이 은인께 감사 드립니다.
김 민 주(가타리나, 경원동 구역장)
-미미 체과소(전화②6589, 상업은행 옆)
□ 지난 주일 봉헌금 43,676원, 감사합니다.
오늘 애령회 특별 헌금 있음.